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사랑교회

Nov. 30, 2025

(통권 1083호)



오늘의 말씀 “기다림의 감사”

[이사야 40:10~11]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庸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담임목사 정석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우리는 6주간 계획의 “감사의 영성”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첫 시간으로 “감사의 시작 ~ 기억 속에서 깨어나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사야 40:1~11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서론 ~ 감사는 ‘기다림’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대림절(Advent)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지연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표로 생활이라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첫 음성은 놀랍게도 책망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사 40: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대림절의 첫 주는 ‘위로로 시작되는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에서 피어오르는 감사’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위로’에서 시작됩니다.

[사 40:1~2]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도 전에,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 94:19]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요한복음 14:16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또 다른 위로자’(Paraclete)’이심을 보여줍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책망보다 위로를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로는 곧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에서 시작됩니다.

죄의 형벌을 끝내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어집니다. 이미 읽어드린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 변화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현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감동이 우리의 삶을 이미 감사로서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Mere Christianity(순전한 기독교)] Part IV Christian Behavior(기독교의 행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무력함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회개이며, 회개는 용서를 향한 문이다.” 여기에서 C.S. 루이스는 감사가 환경의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The Problem of Pain(고통의 문제)]에서 “고통과 감사의 관계”를 논하면서 참된 감사는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불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적 회복과 용서의 은혜가 감사의 핵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The Weight of Glory(영광의 무게)]에서 “진짜 기쁨은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참된 감사는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포로된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는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감사는 ‘준비하는 기다림’에서 자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 40:3~5]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3절)”고 선포하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 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대림절의 기다림은 준비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길을 여는 영적 훈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낮아지고 높아지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서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메워져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마음은 평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에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겐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 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려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은 낮아지고, 상처가 메워지며, 울퉁불퉁한 마음이 평탄해지는 기적은 바로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교만을 낮추고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내적 예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다림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5절)”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기다림의 믿음과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요 11: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감사는 영광을 불러오는 영적인 문입니다.

감사는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서 섭니다.

[사 40:6~8]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의 마음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환경은 변하고, 사람의 말은 흔들리고, 감정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토대입니다.

[마 24:35]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 119: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근원입니다.

말씀의 약속은 ‘기다림의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이 온다.” 그는 중국 선교의 모든 여정에서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으로 감사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감사는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 40:9~11]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본문은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9절)!”
대림절의 핵심 선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것은 곧, “그분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선언입니다.

강한 자로 오시되, 목자처럼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10~11절).

그는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어린 양을 품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 두 성품이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요 10:11)”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마 11:28~29).”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감사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론 ~ 감사는 기다림에서 가장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며, 기다림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감사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또한 감사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포인트:

- A. 대림절 성도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의 교만을 낮추고, 채워야 할 골짜기(상처와 불신)들이 돋워지고, 평탄하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 B. 주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 현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일;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 C. 심하게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상황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 D. 성탄절이 오기 까지 하루하루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순종으로 보내게 하옵소서.